



이번 사랑의 캠프에 참여한 이들이 힘차게 손을 흔들고 있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공개강좌에서 한성열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우리가 이 땅의 밀알입니다”

### 밀알선교단 서부지단 사랑의 캠프 개최해

2018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 캠프가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약 400여 명의 장애인, 자원봉사자, 스태프들이 참석해 캠퍼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어우러져 예배 드리고 식사 및 교제를 나누며 여러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캠프 첫째날 개최예배에서는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인 김영길 목

사(감사한인교회 원로)가 메시지를 전했고 모든 참가자들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며 장애와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나누었다. 둘째날 참가자들을 성인팀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수영, 교제 등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저녁에는 모두 정장을 차려 입고 '퀸 메리호'를 방문해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

진 룸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스 파티를 하고 멋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마지막날은 기도회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 폐회예배를 끝으로 2018년 사랑의 캠프를 마쳤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올해도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후원 덕분에 멋지고 아름다운 캠프가 진행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참가자와 봉사자들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는가?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우중학 교수를 초청해 '종교와 과학의 접점'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연다. 우중학 교수는 소위 유신화론자로 불리며 '과학과 신학의 대화(과신대)'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다. 예장합동 소속 모태신앙인이며 학창 시절 IVF, GSF 등 보수적인 선교단체에서 활동한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캘리포니아주립대와 UCLA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NASA가 젊은 학자들에게 수여하는 허블 펠로우십을 수 상했다. 그는 기독교적 창조론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젊은 지구론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도



우중학 교수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다. 그가 이끄는 과신대는 젊은 기독교인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과학과 신앙 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 모임에 대해 “잃어버린 양과 같이 교회를 떠난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행사는 오는 7월 24일 오후 7시 파사데나장로교회 내의 갬블라운지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425-530-7126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제일 먼저 영향 받는 조직은 가정과 교회일 것입니다.”

한국 상담목회아카데미 원장 한성열 교수가 LA를 찾았다. 한 교수는 시카고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Ph.D.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긍정상담계의 최고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훈련을 받아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지론 하에 상담목회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수백 명 목회자들의 상담 사역을 돕고 있다. 현재 그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교수도 겸하고 있다.

지난 22일 할렐루야한인교회(송재호 목사)에서 미드웨스턴 주관으로 열린 공개강좌에서 한 교수는 “사람들은 ‘힐링’을 원하는데 교회에 상담 전문가가 없다”면서 “교회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의 쇠락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쇠락의 징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교회의 대처 방법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의 지능을 능가했고 앞으로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어떤 괴물이 나올 것”이라며 “소위 머리가 좋다는 약사, 간호사, 의사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라질 직업군”이라 전망했다. 또한 “지식과 정보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지만 감정과 마음을 만져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 교수는 “독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인공지능 목사를 만들었고, 설교와 축도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그러나 몸과 마음을 뛰어넘는 영적인 감정을 풀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라 말했다. 한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30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바라는 교회는 크기가 아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라며 “목회자들은 교인 숫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평안을 주는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목회는 상담목회를 통해 인공지능이 다룰 수 없는 상담과 치유를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 분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인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시온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Brake Service	전기계통
Tune-Ups	10K Service
Computer Diagnostic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인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포럼을 마친 후,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전국 70주년 기념 포럼 열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LA회장 최학량 목사)가 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건국 70주년 기념 로스앤젤레스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아!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역사 제대로 알기”였으며 신철식 회장(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강연했다. 신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조정 차장을 지냈으며故 신현확 전 총리의 아들이다. 이날 행사는 김삼도 이사의 인사

와 최학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혜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목사장으로중앙단이 찬양하고, 김평우 변호사가 축사했다. 문무일 상임이사가 강사를 소개한 후, 강의가 시작됐고 이기흥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 “목회와 부흥의 비결은 오직 기도”

#### 전주영생교회 강희만 원로목사 인터뷰

필리핀 선교사인 강희만 원로목사(전주영생교회)가 최근 남가주를 방문해 남가주목사회 주최 6.25 기념 집회와 각종 세미나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그가 섬긴 전주영생교회는 아픔과 시련을 겪었지만 기도로 일어난 교회다. 1953년 강홍모 목사가 설립한 후 성도 수천 명의 대형교회로 급성장했지만 방화 사건으로 인해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영생학원과 전주대학교를 빼앗겼고 했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교회에 방화를 저지르고 부교역자들을 회유, 협박해 교회가 산산조각났다. 당시 방화범은 주님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죄책감에 교회를 찾아와 울며 사과하고 자수했지만, 당국은 누전에 의한 화재였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만다.

모진 고난의 결과로 강홍모 목사의 아들이면서 당시 전주대 교수였던 강희만 장로가 교회 사역에 뛰어 들게 됐다. 다시 모인 성도가 27명이었다. 수년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심지어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시

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다시 급성장했다. 비결은 따로 없었다. 강희만 목사와 함께 매일 철야기도 하는 14명의 멤버들이 밤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현재 이 교회에는 3천명 성도가 출석하며 세계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강 목사는 교단 법에 따르면 75세에 은퇴이지만 지난해 9월, 3년이나 일찍 은퇴했다. 젊은 후배들이 앞장서야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눈물로 만류했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단호히 은퇴했다. 그리고 은퇴식 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선교지를 향해 떠났고

현재까지 전주영생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리움이 사무쳐도 후임목회자와 성도, 교회를 위해 서였다.

그는 목회 후배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라”며 자신의 목회 노하우를 요약했다.



전주영생교회 강희만 원로목사를 만났다.



과거 열렸던 탁구대회 모습

### 선교 위한 교회 친선 탁구대회

선교 기금 모금을 위한 남가주 교회 및 단체 친선 탁구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갈보리선교교회가 주도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모금된 탁구대회의 기금들은 탄자니아 와타톨루 미전도 종족 선교, 멕시코와 아리조나 원주민 선교, 일본 선교 등에 사용돼 왔다.

갈보리선교교회는 탄자니아 와타톨루 선교를 22년 전 시작해 현재 6명의 선교사가 상주하며 복음과 기술을 전하고 있다. 또 같은 나라 다르살람 지역에는 현재까지 27개의 교회를 개척한 상황이다.

이 교회는 매년 2차례 멕시코 선교를 가는데 최근 멕시코 로사리토 지역에 갈보리선교교회를 건축해 지역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심상은 담임목사는 “이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14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탁구’라는 운동을 통해 서로 아름다운 정성과 기도와 협력을 모았기 때문”이라며 “선교

지에 더욱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탁구를 통한 만남으로 인해서 지역 교회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7월 7일(토) 오전 9시에 부에나파크 중학교(69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열린다. 현재 단체전은 등록이 마감된 상태이며 단식과 복식 참가는 단식이 30달러, 복식이 60달러다. 선수는 반드시 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 접수에 관한 문서는 갈보리선교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714-229-8492)로 하면 된다.

당일 오전에는 단체전 예선이 진행되며 식사 후 오후에 개인전 및 시니어 복식, 단체전 준결승 및 단체전 결승 경기가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자와 응원자에게는 점심식사와 음료수가 제공된다. 1위부터 3위까지 상을 받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이 증정된다.

### 하덕규 목사와 함께 하는 축제

#### 7월 7일 갈릴리선교교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CCM 가수인 하덕규 목사가 남가주를 방문한다. 그는 오는 7월 7일(토) 오후 7시 30분 갈릴리선교교회(담임 한현영 목사,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90018)에서 “하덕규 목사와 함께 하는 찬양과 말씀의 축제”에 나설 예정이다.



하덕규 목사

하 목사는 1981년 ‘시인과 촌장’이란 이름으로 대중음악계에 데뷔해 재희, 꽃을 주고 간 사랑(남궁옥분), 숲, 한계령(양희은), 자유 등 명곡을 남겼고 특히 가시나무는 조성모를 비롯해 수많은 후배들에 의해

리메이크되며 한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그는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를 지향하는 갈릴리선교교회가 2018년의 절반을 시작하며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2018 하프타임 집회’로 준비한 것이다. 문의) 323-735-6412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40<sup>up</s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한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과 동일합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한국 교회의 수난 (III)

서북지방 기독교 지도자들을 박멸할 목적으로 허위로 꾸며낸 105인 사건은 명백한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법부는 정의와는 동떨어진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기사는 곧 미국의 「뉴욕헤럴드」(The New York Herald), 「더 선」(The Sun),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 일본의 「재팬 크로니클」(The Japan Chronicle), 「재팬 가젯트」(The Japan Gazette), 「재팬 에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 등에 연일 게재되어 세계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

이제까지 소극적이던 미국 선교부도 공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허구성고 잔인무도한 고문의 실태가 폭로되자 이 문제를 일제의 기독교 박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교회는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의회 지도자들과 접촉하면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힘쓰기 시작하였다. 브라운은 이 사건의 전말을 '한국의 음모'(The Korean Conspiracy Case)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미국과 기타 여러 나라의 신문에 보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교부의 적극적 관여로 일제도 세계의 이목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2심에서 적당히 축소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끝맺었다. 일제가 서북의 기독교 세력을 박멸하기 위해 저지른 이 서투른 조작극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그렇게 마무리 되었고 일제의 비열하고 음흉한 흥계를 세계에 폭로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일제가 기독교를 박멸해야만 식민지 통치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 주었고, 교회가 항일의 근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교회는 또다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결코 그런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일제의 기독교 학교의 탄압과 개정 사립학교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일제는 기독교에 직접 박해를 가할 경우 선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초래될 것을 염려하였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독교 세력을 억압하고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기독교계 학교를 탄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당시 한국 교회 가정의 4만여 학령기 아이들 중 2만여 명이 교회 소속 1천여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은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된다는 의미로 일제에게는 조선 통치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총독부는 기독교 학교를 그들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기 위하여 1911년 8월 전문 30조로 된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각급 학교(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사립학교)의 교육규칙과 학교관제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은 철저히 일본학생과 한국학생과의 차별 교육을 규정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일본 학생의 수업 연한은 6년이나 한국 학생은 3~4년이었고, 중학교도 일본 학생은 5년인데 한국 학생은 4년이였다. 여자중학교의 경우도 일본 학생은 5년이나 한국 학생은 3년에 불과하였다. 또한 한국에는 전문학교도, 대학교도 설립할 수 없게 하여, 1907년 통감부 시절 대학 인가를 받았던 이화학당 내의 대학교(大學科)도 취소하였다.

양기탁, 조만식, 남궁억 등이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모은 600만원으로 대학설립 인가를 청원했으나 이는 이 법에 따라 거절당했다. 따라서 이 법이 규정한 최종적 목표는 한국 아동들에게는 초등학교 3~4년의 보통교육으로 그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1910년에서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전국적으로 보통학교는 249개 교에 불과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교육은 일본 왕이 발표한 교육칙어(教育勅語)의 정신에 의하여 한국 백성을 일본의 충성스럽고 충직한 속국민(屬國民)으로 만들어 조선을 영구 식민지로 만들려 함에 있었다.



미주 예성 서남지방회 교직원 수양회가 열렸다.

## 예성 서남지방회 교직원 수양회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서남지방회가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팜스프링스에 있는 현대리조트스파에서 교직원 연합수양회를 개최했다. 40여 명이 참석한 이 수양회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었다.

특히 “목사님! 행복하십니까?”란 주제 아래 열린 금번 수양회에

서 강사로 나선 오병익 목사(남가주 벨앨교회)와 강태광 목사(월드뷰어 USA)는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목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강조하며 큰 은혜를 전했다.

한편, 예수교미주성결교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회를 준비하며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차드를 방문한 소망소사이어티

## 차드에 전한 사랑 큰 열매 맺어

소망소사이어티는 5월 28일(월)부터 6월 7일(목)까지 제4차 아프리카 차드 비전트립을 진행한 후, 지난 6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에 비전트립 보고회를 개최했다.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비전트립을 다녀온 참가자들은 이 보고회를 통해 비전트립 동안의 감동을 함께 나누었다.

차드에 필요한 물품인 쌀, 티셔츠를 비롯해 설탕, 선글라스, 구형 휴대폰, 의류 및 의약품 등을 각 개인 및 기업에서 후원받고 랩탑 컴퓨터 3대를 선물로 가져간 비전트립 팀은 소망소사이어티 지부 현지 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파여진 우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돌아보았으며, 직접 우물을 파는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수해 지역을 방문해 쌀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다짐을 했다.” “그동안 뿌린 작은 씨앗들이 큰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간증했다. 참가자들은 차드 정부와 방문 마을의 족장으로부터 받은 감사패와 그들이 직접 제작한 티셔츠 등을 보여주며 현지인들의 감사를 대신 전했다. 특별히 올해 차드 지부의 역점 사업인 가정결연 사업의 후원자들이 결연 가정들을 위해 만들어 보낸 특별 메시지 영상과 편지를 후원물품과 함께 전달했을 때 현지인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를 간증했다.

차드 아이들과 만남, 현지 지부장인 박근선 목사의 수고의 결실, 먼저 떠난 아들을 기념하여 판 우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 사연 등은 보고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위한 방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ñ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아이비 유학**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WELCOME 환영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절감사예배 2018.04.01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6/12-6/17 9:00 AM-4:00 PM  
오랜지 성경교회 유치부 & 유년부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1>

### 멕시코 캄포에서 만난 선교사

몇 년 전 멕시코 국경도시인 멕시코 시칼리 선교를 갔다. 멕시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스페니시 성경 500권을 싣고 멕시코 시칼리에서 남쪽으로 길을 향했다. 산간지역이 많았는데 우리 일행이 산에서 길을 잃고 깊이 들어갔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그 산간지역에 매우 큰 농장이 나타났다. 방울토마토 농장이었다. 일행은 농장이 보고 싶어 입구를 찾아 들어가는데 바깥 문에 총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우리를 저지하였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이 농장이 보여 잠시 안을 구경하고 싶어 왔다고 했다. 경비원이 안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에 지프차가 한 대 나오더니 우리를 따라 들어오라고 했다. 그 안에서 꽤 오래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한 2미터쯤 되는 벽에 붙어서 방울토마토를 따고 있었다. 그 덩굴벽은 한 줄이 수백 미터가 이어져 있고 그런 것이 뒤로 또 수백 미터씩 이어진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그 사이 사이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을 깔 정도의 작은 공간을 분양 받아 거기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멕시코 남부지역 주로 치아파스 산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고용되어 왔다. 그들 가운데 한 백인 여성이 있었다. 약 30세 가량의 젊은이였다. 그녀가 이유가 있었다. 아침에 일찍 부모들이 일하러 가면 아이들만 캄포에 덩그러니 남는다.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미국의 한 선교기관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다.

그들도 일을 해야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 일주일에 5일은 풀타임으로 농장에 가서 똑같이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시간 아이들을 가르쳤다. 다른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양육했다. 아! 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구원사역에 고개가 숙여졌다. 세계 어느 곳이든 열악한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시는 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명이 너무도 고마웠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하니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에는 그 노동자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 없어 그것들을 기도제목이었다 한다. 300권을 선교사님께 드렸더니 우리를 하나님께 보냈다고 하며 감사했다.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깨달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사람당 큰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 할당량이 그 바구니를 채우는 것이었다. 방울토마토는 아주 거친 줄기 안쪽으로 달려 있는데 얼마나 단단히 달려 있는지 손끝의 힘이 여간 드는 것이 아니었다. 일하는 이들은 손이 다 터지고 손톱이 닳아서 반쯤 없어진 이도 있었다. 덩굴벽 안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랐다. 한참 후에 일과가 끝나자 벨이 울리더니 큰 트럭 몇 대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나가는데 어림잡아도 2,3천명은 되어 보였다. 엄청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차량을 따라 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다. 그곳을 캄포라 한다. 집은 고작 몇 밖에 안 되고 길다랗게 지은 가건물 같은 것이 있는데 간신히 지붕만 덮였고 사방벽이 없이 뽕 뚫린 안에 바닥도 흙 그대로인 집터 수용시설이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요같은 것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행 중 몇명은 눈물을 흘렸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행복 선진국 부탄의 행복 가꾸기

행복학(Happiology)을 공부하면 행복을 정복한 부탄이라는 나라를 만납니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있는 극빈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부탄은 유명한 행복 선진국입니다. 부탄이 행복 선진국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잠룡시절 부탄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탄을 방문한 이유는 부탄의 행복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다. 부탄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부탄은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부근에 있으며 인구도, 국민소득도 대한민국의 3분의 1수준입니다. 문맹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부탄은 행복 선진국입니다. 부탄을 행복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탄은 국민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탄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탄 국민의 97%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GHN)를 더 중시합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적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부탄을 행복 선진국이라 인정하는 세 번째 이유는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오는 날은 부탄의 휴일입니다. 첫째를 맞으며 행복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낭만적 접근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눈이 와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정말 웃기는 정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탄은 첫눈을 만끽하며 국민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경제적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부탄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인정합니다. 공무원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휴무를 보장합니다. 공무원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공무원

의 공적인 업무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덴마크, 부탄 등의 행복 선진국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공통점은 국가나 총체적 사회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행복을 추구하고, 기업이 행복을 추구하고, 종교 단체가 통합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 인프라가 구축되어 행복지수가 높은 사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부탄의 구체적인 노력은 사회 복지 제도에 나타납니다. 부탄은 고등학교까지 무료입니다. 무상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대학과 해외 유학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병원비도 무료입니다. 무상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부탄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는 외국에 보내어 무료로 치료받게 합니다. 여하간 부탄은 놀라우리만치 국민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마음가짐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제도적 행복을 추진해야 더 효과적인 행복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복 실험을 했던 호주의 메릭 빌의 경우나 영국의 슬라우의 경우도 집단적 행복 추구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 제5회 남가주 학생 찬양 경연대회 열린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제5회 남가주 학생 찬양 경연대회를 앞두고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협회는 한인 2세 자녀들이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며 부모들과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매년 이 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학생 찬양 경연대회 참가자들

올해 대회는 9월 1일(토) 오전 11시 총현선교회(민중기 담임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교육관 1층에서 열린다. 성악, 현악, 목관, 금관 악기 등 다양한 부문에서 도전할 수 있으며 킨더가든 학생부터 12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하다. 각 학년별로 1등부터 3등까지 시상하며, 전체 1등에겐 대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들은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

91203)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번 찬양 경연대회와 관련된 각종 문의는 오윤정 기약 분과장(818-397-3344)이나 윤진영 학생 분과장(213-222-3050)에게 하면 된다.

이 협회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1971년 설립됐다. 올해로 설립 47주년을 맞이했으며 다양한 행사와 활동으로 교회 음악의 발전과 교회 연합을 선도해 왔다. 주요 사업은 남가주 찬양합창제, 학

생 찬양 경연대회, 창작성가의 밤이 대표적이다. 올해 초에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라는 주제로 장학 후원의 밤을 개최해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후속 사업으로 '이웃 교회 돌아보기'라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다. 각 교회 찬양대의 지휘자 및 반주자, 독창자, 찬양 사역자들이 이 협회에 참여할 자격이 되며 협회 측은 교회를 섬기는 음악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World Share Guatemala, ONG  
Asistencia de socorro de emergencia  
월드쉐어 과테말라 긴급구호 지원

##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월드쉐어는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사태  
구호금 모금 중입니다.**

\*본 구호활동은 남가주목사회(회장 샘 신)가 후원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사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대인관계의 가치기준

야고보서 2:1-2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더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찢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많은 체험과 감동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섬기는 생활로 평생을 성직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교리적인 바탕 위에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A.D 62년쯤 기록된 것으로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조짐이 있었고 그것을 직감한 야고보는 앞으로 교회가 대 로마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란, 핍박을 당하며 많은 고난과 순교자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지켜 생명을 이르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애타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셔서 성령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회개 시켜주십니다. 또 인간의 의지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1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이 편지의 대상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매일같이 신앙고백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신앙고백은 말로 하는 것과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입술로 하는 신앙고백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신앙고백이 자신

에게도 유익하고 예수님께도 보람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셨고 가꾸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대할 때 걸치레만 보고 차별대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의 기준은 상대방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이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곧 형제요, 자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뜻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각 지체로서 머리에서 내려지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만일 그 상대방이 성령을 받았다면 같이 협력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합심 전력해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지옥가게 되는 것이니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영혼이 생명 길로 구원 얻게 되도록 전도하는 일에 물질은 물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천국가게 하는 영적 체질 신앙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생활의 밑바닥을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성령으로 가꾸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대 가운데 쓰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건을 아낌

없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16절은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말로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빈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속셈을 하거나 하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은 "네 후손을 통하여 번성하게 되고 인류에게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아무 의심 없이 바칠 수 있었으며 설혹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서 잿더미가 되었

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각 지체로서 그들의 육신의 껍데기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8-9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인관계는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다음 세상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전도종족! 청년세대의 부흥을 위한

# 연합수련회 청년예배자

작은교회 청년연합수련회



8/2-4 2018

\$40 (w/ 매칭\$60)

YWAM LA SUNLAND 베이스

ONE HEART MINISTRY



고창현 목사

현 토렌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전 한국 지구촌 교회 지구사업  
(젊은이목장센터장)  
KOSTA 강사



권베카향 인도자

한국 R45찬양팀 인도자,  
대표곡 "밤이나 낮이나"



변용진목사

God's Image Ministry 대표



김건리목사

베델한인교회 예배음악 총괄,  
KOSTA 강사



오은태목사

하일랜드 코너스톤교회 담임,  
KOSTA 강사



김도열목사

전 EBS PD, 밀알의 밤,  
블래싱 콘서트 PD,  
세계등대교회 사역총괄



조유연전도사

Dejong Film대표,  
새생명비전교회 찬양인도자



조영연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CCM 찬양사역자



우영혜목사

One Heart 인도자,  
CCM 찬양 사역자

With 원하트 워십밴드

## 등록 및 후원

문의 : 김해지 간사 213-347-5080  
lynkimoneheart@gmail.com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체크 또는 인터넷 등록  
Pay to : CTSM & cosyscosys@gmail.com (Paypal)  
메일 주소 : 2500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후원 : GBC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교회후원 : 나성순복음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일랜드코너스톤교회, God's Image, 세계등대교회

하루 3분 거꾸리 운동으로 허리통증과 혈액순환을 한번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 허리통증 해결

# Z-UP 전동 거꾸리

- 손가락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전자동 전동식
- 한국 인기 운동기구 - 노약자분들의 필수품
- 척추, 혈액순환, 근육이완, 청소년 성장촉진에 좋습니다!

## 전동 거꾸리로 평생 허리통증에서 해방!

1. 활발한 운동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반복적인 거꾸리 운동으로 척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통증을 유발하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간격이 넓어진 척추공간에 통증이 줄고 회복력을 자연히 높여줍니다.
  3.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요가에서 물구나무 서기와 똑같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은 나를 지킵니다. 장수로 가는 길목입니다. 1일 1번 물구나무 서기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이동, 정맥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 특히,  
 1. 평소 허리에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걸으시거나 2. 묵직한 허리 느낌이 있거나 허리가 빠근하신 분  
 3. 산악훈련, 등산, 심한 육체노동 후, 전신 혈액순환, 전신 근육 피로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전동 거꾸리 효능 (계속 반복 운동을 했을 경우)

- |  |  |
|--|--|
| 1. 머리의 혈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 6. 거꾸리 운동 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 2. 전신이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 7.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도 충분한 운동효과를 유발합니다.         |
| 3. 척추의 곡만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 8.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자극) |
| 4. 추간판 디스크의 간극이 이완, 확장되고, 신경눌림이 없어져, 허리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  |
| 5. 전신 근육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근 및 어깨 회전 근계골 등)           |  |

## 손쉽게 하는 전동 거꾸리로 물구나무서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 ★ 척추기능향상

평소 직립 보행으로 하체에 혈액이 모이게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다보면 혈액이 머리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를 척추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척추기능이 향상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비염, 코막힘 해소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코막힘이나 비염 치료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Z-UP 2S



Z-UP 3

2717 Olympic Blvd., L.A., CA 90010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천종산삼 옆)  
 Tel. 213-382-7100, 213-700-8382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홍성사 제공

## 영문학자, 판타지 작가, 기독교변증가

### C. S. 루이스 컨퍼런스 남서울교회에서 개최

'인문학과 교회, 그리고 C. S. 루이스: 루이스를 통해 본 기독교 인문학과 그 역할'을 주제로 '2018 C. S. 루이스 컨퍼런스'가 2일 서울 반포동 남서울교회(담임 화종부 목사)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 첫 발표에 나선 정정호 교수(중앙대)는 '루이스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표했다. 그는 "루이스는 영문학 교수이자 문학비평가, 시인이자 공상과학 소설, 판타지 문학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교파를 초월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을 쉽고 재미있는 언어로 '번역'해 개신교의 복음주의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대중신학자"라며 "루이스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러한 그의 다면체적 정체성에 대한 경탄과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저는 루이스의 이러한 탁월한 다면체적 복합능력의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루이스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서구의 인문학적 전통에서 사유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았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며 루이스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서전(예기치 못한 기쁨(1955))을 중심으로 문학·역사·철학 등 세 부분에서 자세히 살폈다.

이후 결론에서 "영문학자·작가·기독교 변증가로서 루이스의 복합적 정체성의 비밀은 문학적 비전, 역사외시, 철학적 논증 등 세 요소가 협력하여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통합된 것"이라며 "기독교도 루이스의 '필생의 신앙적 목표는, 루이스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통합된 감수성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루이스는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들을 창조·타락·구원의 절대 서사시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편입시키는 것이 새 사람 된 기독교인의 책무라고 했다"며 "저는 인문학도로서 루이스를 알게 된 후, 멀리서나마 그를 따르고자 보잘 것 없는 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끼워 미약하나마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해 믿음과 지식을 통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욱 교수가 '〈시편 사색〉과 루이스의 성경관'을 발표했다. 그는 "루이스는 전문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성경과 다양한 신학적 저작들을 읽고 연구하고 섭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 세계를 형성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신학자였다"며 "이 말은 그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경관이 있었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성경학자였다는 점이며, 그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저술이 〈시편 사색〉"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루이스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초자연적 신성을 가진다고 봤다. 전통적 복음주의 성경관과 유사하지만, 성경의 '완전 영감과 전적 무오'와는 다소 달랐다"며 "그는 구약을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시편을 포함한 구약 본문들이 1차적인 문법적·역사적 의미를 넘어 2차적인 의미, 즉 숨겨진 또는 풍유적·비유적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다. 그는 이러한 해석이 현대인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해석을 산출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런 방법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루이스의 성경관이 전통적 복음주의 성경관과 차이가 있지만,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또 성경 본문의 2차적 의미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을 적절히 수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루이스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치우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인성 교수(숭실대)는 나니아 연대기 중 창조와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마법의 조각〉과 〈마지막 전투〉,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중심으로 '루이스의 판타지 문학과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루이스는 나니아를 통해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an otherworld)'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 세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즉 기독교인들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루이스는 독자들을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상징적 도구로 '다른 세계'를 활용하고 있다. 판타지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나니아의 이 '공간'을 통해 루이스는 자신의 자연관, 선과 악의 힘, 그리고 여러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자신의 판타지 문학에서 루이스는 독자들로부터 강렬하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한 반응을 끌어내고자 했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스페이스'를 통해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에게는 비유적·상징적 의미 전달의 보고가 바로 '스페이스'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페이스에 관심을 갖고, 루이스의 판타지 문학을 다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작품의 넓이와 깊이가 다르게 보이고, 작품이 새롭고 끝없이 다층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그렇다면 루이스의 상상의 세계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주요 통로(door)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세계보다 작품 속 세계가 훨씬 더 넓고 크게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루이스가 체험한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하게 될텐데, 이것이 곧 루이스 문학의 매력이자 매력"이라고 정리했다.

홍종란 번역가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의 몇 가지 측면: 루이스의 편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그를 세상에 알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1942)〉, 마지막 작품인 〈개인기도: 말씀에게 보내는 편지(1964)〉 등 '편지'는 루이스의 저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편지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고 생각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매체로 여겼다"며 "문학작품으로서의 편지가 아닌, 진짜 개인적으로 쓴 편지에 대해 살폈다.

홍 번역가는 "요즘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하듯 그때는 편지를 쓴 것일 뿐이니 딱히 대단할 것도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루이스는 편지쓰기를 취미활동으로 한 게 아니라 바쁜 와중에 손가락 관절염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시간을 내 한 자 한 자 써내려갔다"며 "그의 편지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엡4:15)'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번역가는 "루이스의 편지는 따뜻함과 유쾌함이 가득하다. 그의 조언은 신앙적이든 실제적이든 학문적이든 고압적이고 냉담한 조언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순례자들에게, 동일한 고민을 하는 동료에게 전하는 따스한 위로와 격려였다"며 "그의 편지에서는 또 하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거만함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컨퍼런스에서는 이종태 교수(뱃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가 '아슬란의 노래: 루이스의 재주술화비전, 심현찬 원장이 '기독교 인문주의자 루이스'를 각각 발표했으며, 모든 발표가 끝난 뒤에는 모든 발표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대웅 기자

# 교회, 미션, 선교교회

## LA 지역

###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인간이 세를 넘어감에, 인간이 정을 치루어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909-6473 / www.missionla.org

###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화사별 오전 6:20

#### 갈릴리안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com

###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가나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쪽에 위치)

###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 김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 (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 정병노 담임목사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죽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il@2111signa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정면 북쪽쪽에 위치)

###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메일 받고 기도회 오후 9시

####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리셋에베일리안예배 (쇼야비) 오전 11:00

####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olympic-church.org

###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 381-9490

###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스.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 교회관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 충현선교회

블러세(Calling), 고교지(Healing), 기쁨(Work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nghyun.org

###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대청)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 장지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차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대청)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hla.com

###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여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공예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et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공복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토)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토)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절문)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행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net.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절문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장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232)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 “오정현 목사 ‘재안수’ 불필요”

### 교갱협과 CAL-NET, 대법원 판결에 유감 표명

교회갱신협의회(교갱협, 이사장 이근영 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편입 과정을 문제 삼아 재판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갱협은 지난 27일 발표한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일반편입과 편목편입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범의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절차상의 문제는 아쉽지만, 그래서 ‘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교단법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교갱협은 “오정현 목사의 ‘재안수’가 불필요함은 미국 PCA 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한 것으로 증명된다”면서 “이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 교단 목사는 다시 안수하지 않아도 절차를 거쳐 본 교단 목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교갱협은 “그러므로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년 1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상으로 매우 적합한 것”이라고 했다.

교갱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의 원칙에 입각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삼히 아쉬운 결정”이라며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가 진행한 모든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사법부가 속히 정당한 절차로 바른 판단을 내려 더 이상의 혼돈과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자훈련목회자네트워크(CAL-NET, 전국대표 최상태 목사) 이사회도 이와 관련해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L-NET은 “목사의 자격과 위임에 관한 것은 소속 교단 총회의 헌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권한”이라며 “오정현 목사의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년 1월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으로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소송의 1, 2심 판결과 달리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본교단 120년 신학적 전통과 상반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 제도도 상이한 결정”이라며 “이는 기독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쁜참여가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 제공

### 신천지 20만명 미혹된 원인 찾아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천지대책위원회(위원장 흥계환 목사)가 지난 6월 28일 부산 CBS 강당에서 ‘2018 신천지 집단의 실상과 대책 대응전략 제2차 부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6월 18일 서울 한기총이 위치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차 세미나에 이어 열렸다. 세미나에는 부산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뿐 아니라 울산에서도 참석하는 등 약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신천지대책위 위원장 흥계환 목사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이순필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 신천지가 분명합니다’, 진술현 목사가 ‘신천지 조직의 그 운영과 실태’, 이주미 목사가 ‘신천지의 이것을 주의하라(청년을 중심으로)’, 심우영 목사가 ‘이단들의 특성과 신천지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응’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순필 목사는 신천지의 최신 접근법을 소개하면서 “최근 신천지는 재능기부 형태로 접근해 많은 영혼들이 무더기로 포섭되고 있다”며 “신천지는 더 이상 ‘추수꾼 전략’을 사용하지 않기에, 낡은 대처법 대신 새로운 포섭방식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그들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피아노나 외국어 등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구실로 접근한다. 신천지 4-6명이 함께 배우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친분을 쌓으면서 정보를 빼낸 후 전혀 다른 팀이 투입되어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접근한다”며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더욱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으므로, 신천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지적해 답변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지만, 그들은 답변 대신 교리를 바꾸려 한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신천지에게 ‘무엇이 틀렸는지 알려주겠다’고 오라고 해도, 그들은 오지 않는다. 무조건 신천지를 쫓아내고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러내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현 목사는 “신천지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인데, 20만명이나 미혹된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

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신천지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지 않게 해야 하고, 이미 미혹된 이들은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 목사는 “신천지의 복음방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미혹됐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뒤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지식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그들은 생소하고 들어보지 못한 말에 미혹됐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넘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더 키워야 하고 성경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발제한 이주미 목사는 “나는 신천지 청년회에 있다가 나왔다”며 “청년회 학생들이 아침 7시에 아침전도단으로 모여 전도 리스트를 작성하고, 한 주간 몇 명을 접촉했는지, 몇 명이 ‘따기가 났는지 보고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낮에 포섭 대상자들을 만난 뒤, 저녁에는 ‘귀소 모임’으로 11-12시에 다시 모여 보고한다. 모임이 마치면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지니 교회 주변에서 자취를 하게 된다”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날마다 이러한 생활을 한다”고 공개했다. 이 목사는 “신앙인의 경우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에 봉사 활동이나 독서토론 모임을 진행하고, 일반인의 경우 바로 상담으로 들어간다”며 “고민 많은 청년들이 털어놓을 곳이 없어 무료 상담에 많이 넘어간다.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하면 99% 신천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심우영 목사(중교문제대책전략연구소 소장)는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우리가 해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갈급했던 것이다. 우리는 바른 성경말씀을 가지고 탈출한 이들을 찾아가 함께해야 한다”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신천지에 빠진 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말을 전한 흥계환 목사는 “신천지에 빠진 이들에게 박힌 주홍글씨를 사라지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천지대책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과거 폴라니 민병대에 의한 대학살로 살해된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86명 피살

## 플래토주 주지사 “인도주의적 도전 직면해 있다”

나이지리아 중부 플래토 주에서 농업을 하는 기독교인 86명이 무슬림 풀라니족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23일 나이지리아 중부의 바티칸라디 지역의 한 마을이 습격을 당했다. 뒤늦게 현장을 찾은 경찰이 마을을 수색해 사망자 86명과 부상자 6명을 확인했으며, 가옥은 50여 채가 불에 타고 거리의 차량과 오토바이도 파괴됐다. 이곳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컸다.

현지 경찰은 마을을 습격한 이들이 아프리카 전역을 돌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풀라니족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풀라니족은 생계기반인 플래토주 고원지대를 목초지로 활용할 것인가 농지로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앞서 21일에는 기독교인들이 풀라니족을 습격해 5명을 살해했다. 사흘 동안 두 부족에

서만 91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목격자들은 이슬람국가(IS)가 풀라니족들에 잡입해 이들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티어핀드컨트리 대표인 폴 메사는 “티어핀드는 이같은 끔찍한 행동, 거대한 인명 피해와 광범위한 파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인 ‘플래토주평화구축기관’(Plateau State Peacebuilding Agency)의 창설을 돕기도 했다.

플래토주 시몬 라몽 주지사는 26일 “이번 공격은 2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남겼으며,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면서 “집과 농작물이 화재로 손실되고 수 천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등 인도주의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이라크 난민 파드힐. ©리딩더웨이 제공

# 시각장애인 난민이 성경 87장 암송

## 리딩더웨이 전도팀, 오디오 성경 기기 제공

시각장애를 가진 한 이라크 난민이 태양열로 작동되는 오디오 성경을 이용해 성경 87장을 암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라크 출신의 난민인 파드힐(가명)은 요르단 암만에서 머물고 있다. 그는 ‘리딩더웨이’(Leading The Way) 전도팀으로부터 이 기기를 전달받았다. 이 기기는 아이폰보다 작으며 무게는 65g이다.

전도팀의 일원으로 그를 가정으로 초대했던 데이빗 바턴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 겸손해졌다. 우리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데 그는 성경 한 장을 암기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암기한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팀원인 론 휴스는 “파드힐은 세상

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있고 능력있고 부유한 이들이 아닌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말했다.

리딩더웨이는 25개의 다른 언어로 된 기기를 116,000대 넘게 제공해 왔다. 이 안에는 성경 말씀과 설립자 마이클 유세프 박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기기 하나당 대략 1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유세프 박사는 “하나님은 이 작고 경이로운 포켓 선교사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무나 짜릿함을 느낀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중보기도가 가장 큰 무기”

## 사탄송배자였다 회심한 이의 조언

과거 사탄송배자였다가 그리스도를 돌아온 한 인물이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 증거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에 따르면, 존 라미레즈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CBN과의 인터뷰에서 “주술을 수행할 때, 중보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방해를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주술가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부 친구들로부터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가 동물의 희생을 포함한 사탄의 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팔로 마롬베’(Palo Mayombe)라는 종교의 제사장까지 됐다.

그러다가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녀는 그를 교회로 이끌었고, 기독교인인 자신의 부모님께도 그를 소개했다. 라미레즈는 여자 친구의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배를 드리는 도중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그러나 그가 주술을 내려놓자마자 수많은 영적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지 않았던 그는 현재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나누고 있다.

라미레즈는 “영적으로 나를 쓰러뜨린 이들은 믿는 자들, 중보기도하는 자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주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학교와 이웃, 국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랄 수 없다”면서 “그분은 나의 영웅이며 나의 호흡이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고백했다. 강혜진 기자

###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0: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 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하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대학생예배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을 세우고 복음을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평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남들은 교회 세계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재자생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cn.org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M미션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새생명교회(Thousand Oaks, CA)에서는 English Ministry, Half-Tim으로 함께 사역할 사역자를 찾습니다.

### 대상

Youth/EM Half (or Full) - Time  
정규신학, 대학원 졸업(M. Div학위)  
체류 신분엔 문제가 없는 자

### 제출 서류

이력서 : 사역활동 내용 포함  
자기소개서 : 목회소명, 간증, 가족소개 포함  
신학대학원 제학 혹은 졸업 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외 2명의 추천서  
설교 동영상 2편 (영상파일/링크)  
문의: jimskc@gmail.com

**제출처** jimskc@gmail.com

**우편** New Life Mission Church  
950 Warwick Ave, Thousand Oak, CA 91360

**제출마감일** 2018/ 7/ 28 (토)

**참고** 교회 홈페이지: www.newlifemission.com

**연락처** 661-618-9392



# 새생명교회

## 온유한 사람에게 배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다른 성품과 달리,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모든 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땅에서 자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곡식과 채소와 과실은 땅에서 자랍니다. 또한 소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이 땅에서 자란 곡식과 풀을 먹고 자랍니다. 땅은 생명의 공급처이며,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땅은 씨앗을 품고, 씨앗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함으로 씨앗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땅은 나무에게 지속적인 생명을 공급함으로 나무가 잘 자라고 풍성한 과실을 맺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땅을 맡깁니다. 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땅을 함부로 대합니다. 땅을 파괴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의 가치를 압니다. 그런 까닭에 땅을 돌보아 줍니다. 온유한 사람은 농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심은 후에 정성을 다해 가꿉니다. 농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곡식과 과실이 무르익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오랫동안 인내합니다(약5:7).

온유한 성품은 타고난 성품이 아

니라 훈련된 성품입니다. 온유한 단어는 길들인 야생마에서 나왔습니다. 야생마는 거칠지만 힘이 셉니다. 하지만 야생마가 주인을 잘 만나면 준마(駿馬)가 됩니다. 준마는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말입니다. 준마는 탁월한 말입니다. 충성된 말입니다. 준마는 자신의 힘을 집중하기 위해 절제할 줄 아는 말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님의 아홉가지 열매를 살펴보면 온유라는 성품 앞에 충성이 있고, 그 뒤에 절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5:22-23).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충성됩니다. 또한 절제할 줄 압니다. 절제는 힘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목적을 위해 힘을 집중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온유와 충성이 함께 동행하고, 온유와 절제가 함께 동행합니다.

이삭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이삭에게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이삭의 특징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목자가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와서 빼앗으면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시 우물을 팝니다. 다루지 않을 때까지 우물 파기를 계속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도 적응을 잘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화목을 추구합니다. 온유한 성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모든 생물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깃듭니다. 차갑고 딱딱한 것에는 생명이 깃들지 않습니다. 겨울은 차갑습니다. 얼음이 얼면 딱딱해집니다. 반면에 봄은 따뜻합니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온 땅에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도 따뜻합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언어는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온유함을 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움이 견고함을 이깁니다. 중국의 현인은 “지극한 부드러움은 천하의 지극한 견고함도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물이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끈기가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되 계속 팝니다. 끈기 있게 팝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렬하지 않지만 끈기가 있습니다. 초심뿐만 아니라 뒷심이 있습니다. 시작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뒷심이 필요합니다. 뒷심이 없으면 시작한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온유한 성품을 통해 뒷심을 키워 사명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 신앙을 위한 질문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일반적으로 라틴어로 신앙이라는 단어를 크레도(Credo)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신뢰하다, 의존하다, 혹은 확신하다, 믿기다” 등이다. 무엇보다 이 말의 의미를 신앙과 접목시켜 보게 되면 예배의식이나 침례식(세례식)과 같은 기독교 내에서 필요한 특별한 의식에서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바친다, 충성을 서약한다” 등의 신앙고백과 같은 행위를 나타낸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확신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에 보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앞으로도 이루어질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

이 기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함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상태” 즉 “소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한다면 믿음이란 간절함과 함께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여정은 항상 평이하고 순탄한 순간보다는 더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고난과 시험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스스로가 나약한 존재임을 깨

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게 된다. 이때 우리의 믿음에는 간절한 소망이 잉태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단지 이성적이고 지적인 상태로 이해하던 믿음의 범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믿음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경험하여 신앙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신뢰의 상태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며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행동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고귀한 순간이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같은 물음 앞에 오늘도 세워진 우리 자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향기로운 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몇년 전 “마지막 강의”로 유명했던 랜디 포쉬(Randy Pausch) 교수가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브라운대학을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2007년 9월에 했던 마지막 강의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이요, 인생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신 웃음과 희망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 강의”를 책으로 집필했던 재슬로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쉬와 함께 보냈던 53일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53개의 엑스트라 강의를 더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나

소중하지만, 떠날 때 잘 떠나야 합니다. 깨끗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향기로운 여운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고후3:2).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읽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취를 남기면,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악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를 남기면 “역시 다르구나” 하며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본도 못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향기와 감동은 고사하고, 기본 예의도 상식도 없는 행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향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도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살롬!

잡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취를 남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누추한 자취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은 다 달라도, 마지막 떠날 때 남기는 자취는 아름답아야 합니다. 흔히, 떠나고 나면 그만이지 언제 다시 볼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다시 만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처음 만남도

# 한국교회 구조적 문제 찬양팀 통해 드러나고 있다

## 〈팀사역의 원리〉 펴낸 ‘팀 퍼실리테이터’ 백성훈 목사

하나님께서도 ‘사람(남성)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창2:18) 여성을 만드셨다. 교회에서도 홀로 사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팀이나 조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리고 아무리 구원받고 변화받은 크리스천들끼리 사역을 한다 해도, 갈등과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각 교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두들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를 내세우기에, 조정과 화해도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사역이 흔들리거나 결국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팀사역의 원리〉 저자인 백성훈 목사(김포 이룸없는교회)는 예배팀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여러 지식들을 버무려, 한국교회 팀사역의 건강성에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 예배팀을 다시 건강하게 세우고자 EOM미니스트리를 설립, 예배학교 운영과 예배디렉터 제지만, 교회 예배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팀 퍼실리테이터’(Team Facilitator)로 활동하며 ‘팀사역의 원리’를 보급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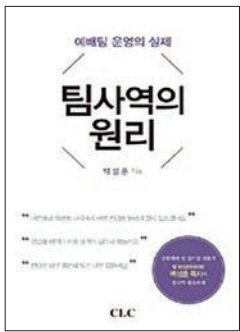
백 목사는 성결대 신학과와 합동신대를 졸업하고 천관용 목사의 뉴사운드교회 부목사와 뉴제너레이션 워십 총괄디렉터로 사역했다. 지금은 추계예술대 평생교육원 CCM 전공에서 기독 영성과 팀 사역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백성훈 목사에게 팀사역의 원리를 청취했다.

**-교회 안팎의 찬양팀 내에서 갈등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해체나 분열이 잦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에도 썼지만, 팀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각각 자기만의 생각과 개성 또는 고집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 공동체로 모이든, 각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대 간 차이도 있지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로 인해 표출되는 문제입니다. 신뢰가 깨지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뒤에서 비난하거나 때로는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둘째로 서로가 생각하는 팀의 정체성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찬양팀의 경우 사역팀인지, 양육팀인지 정체성을 혼동하다 보니 사람이 자주



팀사역의 원리  
백성훈  
CLC | 184쪽

바뀐다거나 연습을 자주 못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밖에서 볼 때 불안하거나 팀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팀사역 문제는 대부분 리더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찬양팀 리더들이 리더십이나 팀사역의 실제에 대해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찬양과 예배 사역을 오래 했던 선배들에게서 배웠던 것, 절대 권위와 카리스마로 해결하려 합니다.

대부분 찬양(예배)팀 리더들은 음악 전공자이거나 음악에 뛰어난 이들입니다.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 능력과는 상관없이 음악을 잘 한다는 이유로 리더가 됐습니다. 사역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할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또는 그들이 가진 실력으로 누르려 합니다. 이 두 가지로 팀을 이끌다 보니 리더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팀사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지요.**

신앙서적 중에는 상담 분야 외에 팀사역을 다루는 책은 없습니다. 상담 서적도 목회자들이 하는 일대일 상담이 중심입니다. 관계도, 운영법도 없습니다. 팀사역에 대해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팀사역은 대부분 영성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성이 충만해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음악성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절대적으로 비교되는 두 가지이지요.

하지만 일반 서적을 찾아보면 상담학이나 심리학, 인간관계론, 직장생활론 등에서 50~60% 정도는 적

용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같은 조직이라도 목표나 행동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비즈니스와 선교가 다르듯, 기독교와 찬양팀만의 특성이 있기에 책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참고하고 제 경험을 녹였습니다.

**-많은 찬양팀들을 보셨을텐데, 갈등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부분 이유는 같습니다. 말씀드렸듯 조직이기 때문에, 또는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문제는 리더십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찬양팀들의 리더들은 음악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첫째로 관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둘째로 본인이 무대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말은 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셋째로 그 리더들 스스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다른 팀원들까지 자리잡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더들조차 그런 부분에서 아직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역형 팀의 경우, 10년씩 사역해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야 하고 경제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내려놓으려 해도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돈 되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온 길 아닙니까. 각자 가정이 생기자 보면 팀원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10년을 해도 똑같이 리더의 무대를 만들어 주는 역할 외에 다른 대안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 리더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팀 갈등 원인은 한국교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들은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다같이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의 생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팀은 우리나라 통틀어 다섯 손가락에 꼽습니다. 나머지는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지요.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해결하지 못하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조직 문제나 의사소통 문제까지 더해지면 팀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까요? 그들은 사례를 주는 팀 또는 대형교회로 가거나, 레슨(학원 등)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아닌 연주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저자 백성훈 목사

앨범에 세션으로 참여하거나 무대에 게스트로 서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 연주자들이 기독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구조적 문제가 찬양팀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그러하나요.**

그대로 비교할 순 없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강연차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처럼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는 평일에 청소만 며칠 해도 먹고 삽니다. 마음껏 예술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교회가 책임지지 못한다 해도, 뮤지션들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극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낮고, 뮤지션들도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경쟁해야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함께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고안한 방법이 ‘기수제’입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팀원들이 일정 기간 1기, 2기, 3기 등으로 거쳐가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쳐가는 팀도 있고 일정한 팀원들이 세워져 있는 팀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다양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많이 고민해 보셨을텐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내교회주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내교회주의’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을 전문적으로 세울 수 있지만, 해당 교회를 벗어나서 사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를 줄 수 있고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킬 능력이 있는 대형교회에서 자기 교회 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이 이 땅 어느 교회에서든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는지도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하고 이 땅에서 복음이 전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고난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전진만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대형교회들도 시골이나 미자립 교회들이 본인들과 무관하지만, 그들이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전진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대형교회에서 기를 쓰고 매년 해외에 선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시골교회를 도와 전도도 합니다. 즉 본인과 관계가 없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웃 교회가 부흥하고 같은 지역 교회에도움이 되는 일은 껍질입니다. 뮤지션들을 양성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그 주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지원하면 됐지만 찬양팀을 키우진 않습니다.

**-책에 본인을 ‘퍼실리테이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나 디렉터 등은 과거형 용어, 퍼실리테이터는 미래형 용어입니다. 일반 사회에는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코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의나 대화를 할 때 진행을 촉진시켜 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때 조율을 돕는 사람, ‘100분 토론’에서 손석희 앵커가 하던 역할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내 팀 안에서 촉진제 역할을 해서 복잡하게 부딪치는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해 주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음악성은 이미 있으니, 팀 사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르쳐 잘 감당하도록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대웅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 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셀라케어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마하네 에후다의 모습



마하네 에후다 입구의 경찰 통제선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80)

# 마하네 에후다- 예루살렘의 재래시장

## 예루살렘의 명물, 마하네 에후다

읍바 거리의 명물인 예루살렘 중앙 시장, 마하네 에후다(Mahane Yehuda)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주로 과일과 채소 종류를 취급하는 이곳은 생선과 빵 그 외에 사람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재래시장이다. 마하네 에후다의 히브리어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면 'Jewish Camp'가 된다.

오스만 제국 시대인 1880년대에 시작된 이 시장은 영국의 위임통치 시절인 1920년대에 상권이 발달하면서 예루살렘의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10개의 크고 작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이 시장의 360여개 점포는 크기가 다양하고 취급하는 품목도 다양하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이웃들이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싼값에 시장을 보려는 종교인들과 외국인들이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켓에서도 물건을 싸게 취급하

는 곳이 있지만 이곳만큼 가격이 저렴한 곳은 없다. 방금 나온 싱싱한 채소나 과일은 다른 곳의 반 가격이 면 살 수 있고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빵인 피타 빵이 10개나 들어있는 것을 이곳에서는 5세겔(1달러 조금 넘는) 정도면 살 수 있다. 계란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 슈퍼마켓에서 1Kg에 85세겔 하는 소고기 생고기 부위 중 가장 좋은 부위를 30세겔이면 살 수 있다.

물건 값을 싸게 외치며 손님들에게 자기 물건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싼 가격인데 더 싸게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 견과일류들은 그냥 하나쯤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넉넉한 인심이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 마하네 에후다의 아픔과 종교성

한국에서도 재래시장 현대화라고 해서 원래의 재래시장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성스러운 도시라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마하네 에후다

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재미와 흥겨움이 있는 이곳도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수년에 걸쳐 이곳은 테러의 대상이 되어 많은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었다. 지금도 그 기념비는 남아있다. 경찰당국은 시장의 입구에 무장 경찰들을 배치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지만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시장을 보아야 하는 고통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장에는 조그만 회당이 있어 기도 시간을 알리고 기도하라고 손님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안식일이 돌아오면 오후 3시쯤에 나팔을 불며 안식일을 지키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기 위해 일러 물건을 사고 시장을 나가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안식일이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은 바쁘기 이를 말할 수 없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많은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도 출입하지 않는다. 흥청거리던 시장이 뒤 죽은 듯 조용하다.

그러나 욥 리슨(Sunday, 주일 아침)이면 닫혔던 문들이 일제히 열리며 활기찬 시장의 하루는 시작될 것이다.

### 시장의 현대화와 관광지화

서민의 애환을 담고 있는 재래시장의 한 구석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카페들이 등장하며 시장의 현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조만간 재래시장의 그 정겨움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난 후로 2012년에 예루살렘 시의 시장 현대화 개발 계획으로 인해 기존의 유대교 전통을 식을 벗어난 식당들도 자리잡고 식

도락 상품들도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외국을 여행하면서 그 나라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방문이 필수적이다. 재래시장이야말로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려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시장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식당과 생맥주 집이 많이 생겨서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저녁이면 적막하던 이곳에 새벽 2-3시까지 사람들이 와서 낭만을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시장에는 유명 커피 전문점들이 생기고 재래시장의 인기가 점점 높아간다고 한다.

예루살렘 중앙시장, 이름만 들어도 정겹다. 우리 가족이 예루살렘에 살 때 많이 이용하였고,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기에 정이 더 가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이 시장에 들러 올리브기름이나 한 병 사가지고 갈까.

(계속)



마하네 에후다에서 파는 식료품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시장 안에 있는 빵집

##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척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비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곳

##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 213-272-6031

#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생각 낳은 제자훈련

## 서문강 목사,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 기조발제

제6회 서울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가 6월 25일 안양 열린교회(담임 김남준 목사)에서 '목회자의 초상과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자의 역할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서문강 목사(중심교회)가 '설교자의 설교와 신학: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과 나의 목회'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서문강 목사는 "교회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마다 '제대로 된 설교자와 설교'가 반드시 있었다. 반면 교회의 영적 수준이 낮을수록 '설교'의 가치를 낮추고 '예배 중 지루한 순서'로 보는 경향이 짙었다"며 "1-4세기 초대교회 시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와 이어진 17세기 청교도 시대,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시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적 부흥 등은 설교에서 정체성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쓰신 설교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문강 목사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 속에서 '설교의 평가 절하'가 도를 넘었다. '설교자도 설교에 목숨을 거는 일이나, 회중이 설교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목을 빼고 기다리는 일'은 없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설교자와 회중 모두' 교회성장에 목숨을 건 듯하다"며 "실로 정말 시급한 것은 '설교의 가치에 대한 원론적 재학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 교회의 탄생은 사도의 복음 전도와 설교로 말미암았다(행 2:14-46). 그러므로 기독교의 '설교 제도'는 종교 문화 인류학적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시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거룩한 규례'"라며 "교회가 있고 나서 설교가 있던 것이 아니라, 설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발되고 세워지고 자라고 확장된다. 그러므로 설교와 기독교회의 함수관계에서 '설교'는 '교회의 실상'을 결정하는 변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누가 설교자인가?'에 대한 "설교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연단을 수반하는 일이므로, 아무나 설교해선 안 된다"며 "설교하는 일은 사람이 담당하나 그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 전체에 연관된 공적이고 거룩한 행사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아니,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했다.

서 목사는 "설교를 단순하게 성경 지식의 전달이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은 것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대화로 나누는 수준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설교에 분명 교육적 요소가 있으나, 교육의 동의어로 봐서도 안 된다"며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설교를 교회의 공적 예배 중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신적 행사로 여겼다.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을 받아 보내심 받은 자의 거룩한 임무"라고 전했다.

서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의식은 일반 성도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말씀 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크게 일조했다. 제자훈련 방식은 '평신도 우민화 사역의 폐해 청산'에는 크게 성공했지만,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과(過)를 저지르기 쉬운 약점이 있다"며 "다시 강조하건대,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①소명받은 자가 ②목사 후보생으로 교회의 추천을 받아 ③소정의 신학훈련을 거쳐 ④교회가 정한 적법 절차와 청

빙 과정을 통해 ⑤보내심 받은 목사에게 주어질 거룩한 사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교자는 ①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지식 곧 성경에 기록된 바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유기적·논리적 안목을 가지는 일 ②그 하나님께 대한 설교자 자신의 인격적 관계 등 두 요소를 절대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교회사 중 위대한 설교자 반열에 든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원만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집중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설교의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긴급한지를 알았다"고 했다.

서 목사는 "우리가 청교도 설교자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학과 경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멘토가 바로 그들이었다"며 "로이드 존스 목사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설교자들을 멘토로 삼은 에드워즈의 글을 읽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설교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낳은 자'라면, 설교자를 학습시키고 세우시는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면 사도들을 설교자들로 세우신 예수님의 방식 또는 제자들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며 "예수님은 공생애 3년간 당신 자신과 그 행하실 일을 중심으로 구약성경을 가르치셨다.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했다. 또 '신학이란 '성경전서가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그 행사에 대한 유기적·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추는 작업'이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바로 그 학습을 시키셨다. 설교자가 받은 '신학'이 바



컨퍼런스에서 발제하는 서문강 목사

로 그것이고, 그것이 '참된 경건 또는 살아있는 믿음의 이치'라며 "사도시대 이후 전 교회사의 모든 설교자들은 바로 그 '신학'을 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고전2:20)'만 전했고, 그것이 사도가 이해한 설교였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증인의 능력'은 보혜사 성령님께 일임하셨다"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행한 '최초의 신약적 설교'는 구약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완성과 그 효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권하며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학습과 성령님의 기쁨부심의 소산"이라고 소개했다.

서 목사는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기독교 고전 읽기'를 권했다. 이에 대해 "현대를 알기 위해 현대를 연구하는 것은 마치 사람을 알기 위해 사람을 연구하거나, 자기 얼굴 모습을 보려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는 일만 고집하는 것"이라며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거기서 교회사에서 남겨진 살아있는 유산, 그 증거자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설교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항시적 적실성을 만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혁주의란 '교

회사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신 성령님의 교훈 체계'라고 확인한다. 그래서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모르면 개혁주의 설교자는 아니다"며 "거기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증거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행하고 설교해야 하는지 그 실제의 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전혀 몰랐던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알았으나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기본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제안에 도전을 받고 망각했던 '설교자와 설교, 신약의 기본'을 찾는 데 도움을 입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이후 양낙홍 교수(고신대)가 '에드워즈의 부흥론', 정성욱 교수(美 덴버신학대)가 '에드워즈의 (원죄론)을 통해 본 죄의 본질과 구원의 의미', 이진락 박사(총신대)가 '에드워즈의 구속사 설교에 나타난 주요 신학 주제들', 이윤석 박사(독수리기독교 연구소장)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본 에드워즈의 성화론', 심현찬 원장이 '경건의 초상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각각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원장 심현찬 목사)과 큐리오스 인터내셔널(대표 정성욱 교수)에서 공동 주최했다.

이대웅 기자

# “복음적 연합과 일치로... 기독교 지성의 책임 감당하겠다”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신임회장에 선출된 정상은 박사(성결대 전 총장)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직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전 현직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대학총장포럼은 학문과 대학 경영의 경험을 살려 대학 간 연대와 새로운 정보공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대학사회의 발전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에 창립되어 회원 수가 4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무총장을 맡다 4일 강남 엠베서더호텔 프로방스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일웅 박사(총신대 전 총장)에 이어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된 정상은 박사는 "대학총장포럼이 5년째를 맞이했는데, 매년 한 차례 열린 정기포럼을 앞으로는 점차 늘려 강화시키고자 한다"며 "급변하는 시대의 문제에 대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단과 함께 해법과 대안을 찾는 일에 힘쓰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했지만 가을쯤 한국교회 총체적 위기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은 회장이 "포럼 출범부터 지금까지 대학총장포럼에서 발표된 글들과 여러 총장님들의 생각과 해안을 담은 글들을 모아 <이 시대 대학총장에게 길을 묻다(가침)>라는 책을 출간하고, 회원과의 연대감을 강화시키며, 각 대학들을 소개하고 선교활동을 담은 소식지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포럼 창립 때부터 그 후후에 걸쳐 실무를 담당하며 그동안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면, 지금은 인적·재정적으로 모든 면이 준비된 상태가 돼 앞으로 나가야 한다.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하나둘씩 한국

교회와 사회, 한국 기독교 대학의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복음주의적이고 변혁적 입장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진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당면한 이 시대는 포스트모던 시대 사조로 기독교적 가치관이 흔들려 종교다원주의와 포용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맘몬이라는 세속적 가치에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며, 이단이 발흥하는 등 전체적으로 위기와 도전이 가중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교회연합기관들의 난립은 혼란을 부추기고 구심점을 잃게 해, 세월호 침몰

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에 대해, 대학총장포럼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정상은 회장이 라고 반문했다.

정상은 박사는 성결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석사와 문학박사를 수료하고, 침례신대에서 석사와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1987년부터 성결대 교수로 부임해 신학대학장과 대학원장, 교목실장을 거쳐 5-6대 총장을 지낸 뒤 지금도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정상은 회장

#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성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청년들에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 2018 러시아 월드컵, ‘멘토’ 이영표 위원과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예선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다. 독일을 잡으려면 대회 최대의 이변을 만들어 줬지만, 이렇듯 생각나는 건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이다. 지금 지상파 3사에서 중계를 맡고 있는 안정환·이영표·박지성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비던 그때 말이다.

이들 중 ‘크리스천’인 이영표 해설위원을 최근 만나 그의 삶과 신앙, 노력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영표 위원은 지난달 <생각이 내가 된다>를 펴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한 권의 책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이영표의 말>을 출간했다. 이 책은 흥성사 ‘꿈’에 매달 ‘밴쿠버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한 단상들을 사진과 함께 모은 글이다. 그리고 9년 전인 2009년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를 썼다. 다음은 이영표 위원과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귀에 들리는 느낌인가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미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파수와 같습니다. ‘믿음의 주파수’가 맞아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주파수로 들으려 하니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듣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에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건 제 고백입니다.

**-이런 ‘모범답안’이 나올 수 있는 ‘생각의 비결’은 독서 덕분인가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텐데, 왜 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왜 일시적으로 들을 뿐, 지속적으로 듣지 못할까?’ 어떤 때는 예상치도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다가,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문제는 제게 있을텐데, 무엇이 문제일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공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냄새 맡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구나.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제가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같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바로 응답하셨다면,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았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미세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너와 함께 있었던 거, 모르니?’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저만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구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따라다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1천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1천년 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에,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무소부재(無所不在,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음)하심’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 순간 서울, 부산, 파리, 런던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벅찼거나 기억에 남는 응답이 있으시다면.**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분이 말씀하셨기에, 그 느낌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일상에서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작은 감동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를 꼽는다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암마가 100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니?’ 라고 묻는 것 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웃음)?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귀에 다 직접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설명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울릴 뿐 아니라, 벌써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동시에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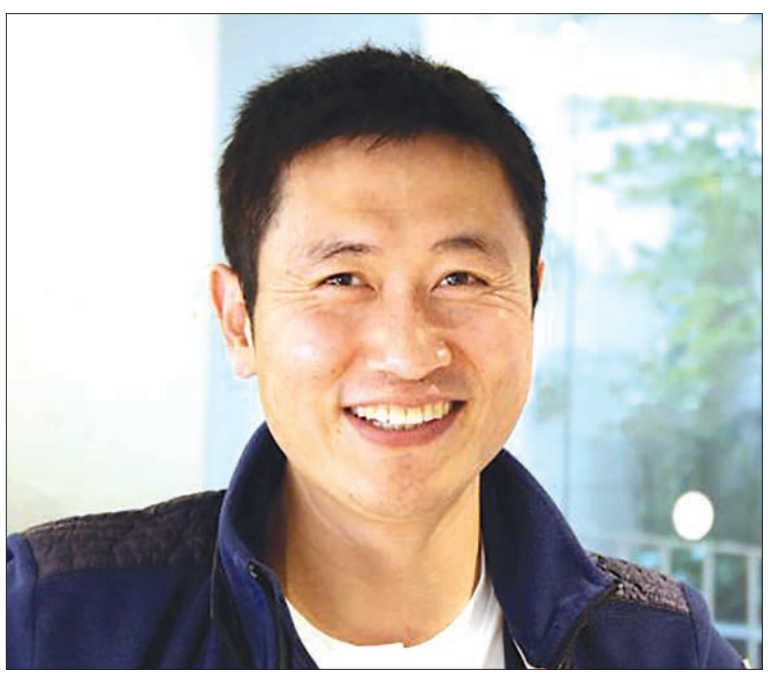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었다 해도, 곧바로 의심이 찾아옵니다.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오히려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처음엔 저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낸 유다는 결국 믿지 못해서 그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는 것,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을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집안이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 없는 세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믿을 순 없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보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접하게 하시지요.**

제가 어떤 이슈만 있으면 신앙이나 성경을 연결시키려 하니, 아이들은 잘 듣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티가 안 나게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웃음). 이런 적은 있습니다. 어느 날 13세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다 자기 종교가 옳다는데,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증거가 뭐냐고요. 저는 일



이영표 위원

단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 없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은 궁금한 게 있다는 것이고, 질문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에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에 대해 먼저 칭찬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삶으로 해답을 얻어갈 수 있다. 그 해답은 한 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찾아서 자연스럽게 그 해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짜인지, 그 대답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2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멘토로 불리시는데,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사용하시지만,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에, 자기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믿음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6:25)’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 곧 선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보편의 선, ‘약한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 소수는 존중받아야 한다’ 등은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자기 동정’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 같지만, 인간을 우상시했기에 인간답지 않게 됩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하나님 말씀 아래 살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는 순간, 인간다움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학문으로만 배울 뿐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선과 악의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성경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죄로 보이는데, 10명 중 8-9명이 죄를 지으니 더 이상 그것을 죄라고 하기 힘들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제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인상깊게 읽은 책 3권을 꼽아 주신다면.**

이재철 목사의 <청년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와 <새신자반>, 그리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입니다. 이대웅 기자

#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전 7권 완간!

## 전통적 개혁신학 입장에서 체계화한 교의신학의 결정판!!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직신학 책의 완성판

서철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B.A), 동 대학원 (M.A), 총신대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Th.M),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Dr. Theol)를 졸업하였다.

자유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중보직」(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은 20세기 100대 신학저술 모음인 Theologicum에 수록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귀국하여 개혁신학연구원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한영신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였다.

저서로 『교리사, 복음과 율법의 관계』(한글 및 일어번역판), 『성령신학, 하나님의 구속경륜, 신앙과 학문』, 『복음적 설교』, 『하나님의 나라』, 『문화명령』, 『종교다원주의』, 『창조신앙』, 『기독교문화관』을 출판하였다. 『언약사상에 대한 새로운 사상』(A New Thought on the Covenant Idea,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Journal of the Netherlands) 외 다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서철원 교수

- I. 신학서론\_ 믿음으로 신학함 304면 / 22,000원
- II. 하나님론\_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 392면 / 26,000원
- III. 인간론\_ 인간, 하나님의 형상 416면 / 29,000원
- IV. 그리스도론\_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사역 296면 / 22,000원

- V. 구원론\_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264면 / 20,000원
  - VI. 교회론\_ 교회, 하나님의 집 176면 / 15,000원
  - VII. 종말론\_ 창조경륜의 궁극적 성취 280면 / 20,000원
- 1세트(전7권) 154,000원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 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